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

총평 • 적중 분석

상상국어평가연구소

2027학년도 9월 모의 평가
국어 총평

- 2026.9.2. 상상국어평가연구소

01 출제 경향 및 난이도

"1. 모든 영역 난도 동반 상승 2. 일부 문항 새로운 유형 시도 3. EBS 연계율 하락 4. 고난도 문항에 따른 변별력 확보"

올해 9모는 지난 6모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독서는 사회를 제외한 인문 복합과 기술 지문이 모두 까다로웠다. 지문과 문항을 포함한 글자 수(10,080자)도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인문은 (나) 지문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전개되었고, 기술은 정보량이 많았다. 특히 고난도 문항인 7번, 13번의 정답 선지가 ①번으로 설계되어 오답률은 더 높을 것이다. 세 지문의 EBS 실질 연계율도 평균 20%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문학도 운문 세트의 일부 문항이 까다로웠고 신유형 문항(26번)을 출제했다. 화작은 선지 정보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언매는 중상 수준의 문항들이 다수 배치되어 풀이 과정이 빡빡했다. 이처럼 각 영역의 난도가 모두 상승함에 따라 다수의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등급컷은 화작 89~90, 언매 85~86(원점수, 1컷 기준)점으로 예상된다.

02 영역별 분석

■ **독서**

올해 6모에 비해 대폭 어려워졌다. 독서론은 진로 독서의 단계와 전략을 소개하되, 전기 류라는 특정한 글의 유형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새로웠다. 지문과 문항의 난도는 대체로 평이했다. 인문 복합은 (가)에서 '종 차별주의와 종 중첩 논증'(수특 p.88)을 재구성하고, (나)에서는 이와 관련지어 인공지능의 도덕적 행위자 지위를 둘러싼 논의를 제시했다. 중심 화제와 관련된 사상들을 대비하되,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충실히 반영했다. EBS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와 달리, (나)는 여러 입장들을 비교하며 각 논증의 전제와 결론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웠다. 특정 관점에서 다른 입장이 제기한 주장을 분석하도록 설계한 7번, <보기>의 논지가 다소 추상적으로 전개된 8번이 특히 어려웠다. 기술은 '전류 밀도의 개념과 특징'(수특, p.17)을 연계했다. EBS 지문에서는 '교류의 특성'과 '열에 의한 회로의 손상'의 내용이 짧게 언급되어 연계율은 낮은 편이었다. '선형 방식'과 '스위칭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병렬적으로 제시했고, 문항들도 기존의 유형과 유사했다. 다만 11번은 '특별한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방식이 사용되는 상황을 묻고 있어 독특했다. 다양한 개념어가 쓰이고 정보량도 많은 점에서 2026학년도 9모 지문과, 주어진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2025학년도 수능 및 2025학년도 6모 지문과 유사하다. 11번은 지문의 정보를 패러프레이징해서 추론의 정도를 높였기 때문에 ③번 선지를 정답으로 잘못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두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은 12번은 다소 어려웠지만 정답 선지는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13번은 지문의 핵심 원리를 기억하지 않고 <보기>에 주어진 정보에만 몰입했다면 ①번 정답 선지를 놓치기 쉬웠을 것이다. 대부분 물리2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해당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다소 유리했을 것이다. 사회 지문은 그나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정형적 조직의 리더를 다룬 EBS 교재와 달리, 비정형적인 환경에서의 리더에 관해 다루고 있어 체감 연계율은 높지 않았다. 16번은 지난 6모와 마찬가지로 <보기>에 대립적인 두 상황을 제시한 뒤 이를 지문의 상반된 입장과 대응시키는 유형으로, 그리 어렵지 않았다.

■ **문학**

평이했던 올해 6모보다 확실히 어려웠다. 일부 문항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었고, 산문보다 운문의 난도가 높게 출제되었다. EBS 연계 작품으로는 「금환기봉」, 「잘 익은 사과」, 「속사미인곡」이, 비연계 작품으로는 「가오리 날아오르다」, 「공작관문고 자서」, 「고향 없는 사람들」이 출제되어 올해 6모처럼 50%의 연계율을 보였다. 「금환기봉」은 출제 부분이 EBS 연계 부분과 70% 이상 겹쳐, 연계 산문에서 연계 정도를 대폭 높이는 최근의 경향을 유지했다. 지문, 문항 모두 평이했다. 갈래 복합은 현대시 2편과 고전 수필을 결합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소한 작품인 데다가 표현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특히 24번은 (가)의 시적 상황을 시적 형상화와 관련된 <보기>의 정보와 결합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②번 정답 선지의 정오 판단이 힘들었을 것이다. 26번은 가정의 형식을 매개로, (나)와 (다) 작품의 구절을 결합하여 구성한 점에서 신유형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소설은 이제껏 선보인 적이 없는 박화성 작가의 작품으로, 작가 차원에서 출제의 외연을 더 넓히겠다는 평가원의 의중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간문을 중심으로 인물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반영되어 어렵지는 않았다. 고전 시가는 이례적으로 단독으로 「속사미인곡」이 구성되었고, 까다로운 편이었다. 32번과 33번 모두 선지를 꼼꼼히 분석하지 않으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다.

■ **화법과 작문**

선지 구성에 변화를 주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다. '해양 유물의 발굴과 보존 처리'를 주제로 한 강연인 화법 세트의 경우, 37번은 선지의 순서가 <보기>의 발화 순서와 다르다는 점, 경쟁 선지인 ④번이 지문의 세부 정보 확인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도가 높았다. '수리 배움터'를 주제로 한 대화와 소개 글의 경우, 40번은 문항에서 제시된 자료가 선지의 정오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며, 개별 정보 외에도 정보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았다. 작문 세트는 '지역신문'에 관한 논설문으로, 지문은 평이했지만 45번의 경우 자료의 성격과 지문에 제시된 정보의 정합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도가 높았다.

■ **언어와 매체**

언어는 지문형(35~36번)에서 특정 어휘에 한정하여 다양한 문법 현상을 설명한 점이 특이했다. 36번 <학습 활동> 문항은 기출 유형과 비슷했지만, 판단 지점이 여러 개 있어 까다로웠다. 단독형의 경우 37번이 친숙한 대용 표현을 다뤘으나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틀릴 위험이 높다. 39번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주어진 문장에 포함된 성분들과 필수적 성질, 안긴절의 구조를 모두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다. 매체 첫 번째 세트(40~43번)는 기출과 달리, 진행자가 단독으로 방송을 이끌며 시청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장면으로 구성했다. 두 번째 세트 역시 이미 생산된 매체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논의하는 형식으로 출제하여 다소 변화를 주었다. 44번 문항은 대부분의 오답 선지에 함정을 파 놓아 까다로웠다.

03 상상 모의고사와 9모

이번 9모는 독서 지문이 다소 어렵게 출제된 데다가 다른 영역의 문항들도 쉽지 않아 풀이 과정에서 원활한 리듬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수능 국어는 난도가 높아질수록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 된다. 매우 평이했던 지난 6모와 달리, 이번 9모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어 올해는 난도가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상 모의고사와 함께 다양한 난도의 문제들을 풀어 보며 이에 대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상상국어평가연구소
적중 분석

■ 적중 사례 모아보기

영역	제재(문항)	상상국어 적중 문항	적중 내용
독서	[1~3] 진로 독서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3차 [1~3]	지문 적중
	[4~9] 종 차별주의	『이매진』 4호 1주차 DAY 1 [1~4]	지문 적중
		『이매진』 6호 3주차 DAY 4 [1~4]	지문 적중, 선지 적중
	[14~17] 오피니언 리더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10~13]	지문 적중
		『이매진』 3호 3주차 DAY 2 [1~5]	지문 적중
문학	[18~21] 금환기봉	『이매진』 2호 3주차 DAY 4 [1~4]	작품 적중
	[22~27] 잘 익은 사과	『이매진』 3호 4주차 DAY 1 [1~3]	작품 적중, 선지 적중, <보기> 적중
	[32~34]「속사미인곡」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32~34]	작품 적중, 대목 일치, 선지 적중, <보기> 적중
		『이매진』 3호 1주차 DAY 3 [1~3]	작품 적중, 대목 일치, 선지 적중, <보기> 적중
언어	[35~36] 중세+단어 (색채어의 형성과 활용)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9일차 [35~36]	내용 적중, 선지 적중
	39번, 문장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27 상상국어 모의고사 시즌3 제3차 39번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2일차 38번	내용 적중, 선지 적중

독서: 독서론 [1~3]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는 네 단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진로 분야와 관련이 있는 인물에 대한 책을 고르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둘째, 인물이 진로와 관련하여 겪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삶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인물의 성공과 실패 경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파악한다. 그리고 글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한 배경지식을 보강한다. 셋째, 주체적으로 인물을 평가한다. 이때 인물의 삶을 맹목적으로 긍정하기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글을 다 읽기 전까지는 인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인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물의 삶과 나의 삶을 연결해 본다. 책을 읽으며 인물의 삶을 이해한 후 자기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을 더 깊게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도 심화될 수 있다.

독자는 전기류를 읽으며 진로 탐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타인의 삶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진로에 대한 가치관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3차 [1~3]

진로 독서 지도에서는 다음의 효과들을 고려하여 글을 선정해야 한다. 첫째는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효과이다.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는 것을 비롯해 자신의 환경적 조건을 가감 없이 인식하는 것이 자기 이해에 포함된다. 글이 자기 이해에 기여하는 정도는 개인의 관심사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글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는 일의 내용, 직업 윤리 등의 직업 정보를 얻는 효과이다. 직업 정보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하는 글뿐 아니라, 직업 정보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글을 통해서도 이러한 효과가 달성된다. 셋째는 삶의 태도를 숙고하게 되는 효과이다. 삶의 태도 자체를 주제로 하는 글은 물론이고, 인물의 생애를 통해 이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전기나 문학 작품도 해당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문 적중

독서: 인문 [4~9] 「종 차별주의」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외의 종(種)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할까? 이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이에 반해 ㉠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은 도덕적 지위가 없거나,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 누군가의 소유인 동물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고,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 그 행위자의 심성이 포악해지므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 흔히 인간은 다른 종에는 없는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종과 ⓐ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덕적인 판단과 행위를 자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면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기 어렵고, 인간에 근접한 정신 능력이 있는 일부 영장류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면 이러한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차별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중략)

(나)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종적 차이를 주장하기 위해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춘 도덕적 행위자라는 인간의 특징을 방어벽으로 내세웠다. 전통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자를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행위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견해의 기저에는 도덕적 행위의 원천인 '행위자'의 범주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 '피행위자'의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표준적 입장이 있다.

『이매진』 4호 1주차 DAY 1 [1~4]

종 차별주의란 종에 따라 도덕적 처우에 차등을 두며, 인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입장이다. 많은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부재하므로 종 차별주의가 잘못된 입장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종의 소속만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도덕적 처우를 그와 무관한 DNA 구조 같은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해 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반면 대부분의 인간 개체가 갖는 고차원적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유아나 식물인간처럼 그 능력을 갖지 못한 인간도 열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들을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고차원적 능력에 근거한 차별 역시 부당하다. 결국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든 종 차별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헨은 권리 개념에 주목하며 종 차별주의를 옹호한다. 먼저 그는 도덕적 차이 논증을 통해 인간 종과 다른 동물 종 간에는 생물학적 차이 외에도 도덕적 차이가 있다고 논변한다. 코헨에 의하면 권리란 특정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이므로, 권리라는 개념은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며 그 주장에 비추어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전제로 한다. 또한 코헨은 개별 개체는 자신의 행위를 ⓐ 돌아보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집단은 규범을 형성하고 전승함으로써 행위를 끊임없이 반성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능력은 개체 차원이 아닌 집단적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여러 집단 가운데 인간 종만이 도덕적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다른 동물 종과 달리 권리가 귀속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코헨은 개체의 권리는 종의 소속을 기준으로 부여된다는 종류 논증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개체에게 권리가 귀속될 때는 그 개체가 지닌 능력이 아니라 그 개체가 속한 종의 특성이 고려된다. 즉 권리는 특정 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체에게 부여되는 속성이며, 도덕적 능력을 지닌 종에 속하는 개체에게만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유아나 식물인간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반면, 다른 종의 개체는 권리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코헨은 이처럼 인간과 그 외의 동물은 권리의 귀속 여부에 [redacted]으로 양자 간에 도덕적 처우에 차등을 두는 것은 [redacted]고 강조한다.

이에 관해 ㉠ 레이첼스는 코헨의 논변에서 권리의 귀속 기준이 비일관적이라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코헨은 권리 개념이 성립하려면 도덕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개체에게 권리를 귀속할 때는 특정 종에 속한다는 사실만을 고려한다. 레이첼스는 집단 전체의 속성을 그 구성원에게 곧바로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인간 종이 도덕적 능력을 지니더라도 개별 개체는 그 능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문 적중

독서: 인문 [4~9] 「종 차별주의」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외의 종(種)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할까? 이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이에 반해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은 도덕적 지위가 없거나,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소유인 동물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고,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 그 행위자의 심성이 포악해지므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 흔히 인간은 다른 종에는 없는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종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덕적인 판단과 행위를 자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특징을 [redacted]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의 [redacted] 어렵고, 인간에 근접한 정신 능력이 있는 일부 영장류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면 이러한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차별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중략)

(나)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종적 차이를 주장하기 위해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춘 도덕적 행위자라는 인간의 특징을 방어벽으로 내세웠다. 전통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자를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행위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견해의 기저에는 도덕적 행위의 원천인 '행위자'의 범주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 '피행위자'의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표준적 입장이 있다.

『이매진』 6호 3주차 DAY 4 [1~4]

도덕적 지위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일까? 어떤 대상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들은 동물을 일종의 사물로 취급하면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동물 학대가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라는 상식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이들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거나, 동물 학대를 행하는 사람의 품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간접적인 이유에서 이에 반대하였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동물 해방론'을 주창한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동물 권리론'을 내세운 레건은 삶의 주체성을 지닌 고등 동물이라면 도덕적 지위뿐 아니라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으로 칠 때 한 살 이상의 지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고등 동물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모[redacted]진 존재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으므로, 레건은 [redacted]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도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싱어와 레건은 동물 학대가 그 자체로 비도덕적인 이유를 제시하였지만, 이들이 내세운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는 고통을 느낄 수 없으며 삶의 주체성도 상실하였지만, 우리는 그 환자의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문 적중

독서: 인문 [4~9] 「종 차별주의」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7. 표준적 입장의 관점에 따라 ㉠,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 내용은, 인간 이외의 종은 '피행위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겠군.

② 다른 종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기대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는 ㉠의 내용은, '피행위자'의 범주가 '행위자'와의 관계에 의해 달라짐을 의미하겠군.

③ 다른 종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의 내용은, 다른 종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됨을 의미하겠군.

④ 타인이 소유한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의 사례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행위자'인 다른 종과 인간의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이겠군.

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행동이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심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 사례는, '피행위자'인 다른 종에게 영향을 준 행위가 '행위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이겠군.

『이매진』 6호 3주차 DAY 4 [1~4]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싱어에 따르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② 롤스는 도덕 법칙이 공동체 내의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보았다.

③ 레건에 따르면 한 살 이상의 모든 동물은 도덕적 지위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④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대상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⑤ 일부의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동물 학대가 이를 행하는 사람들의 품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선지 적중

독서: 사회 [14~17] 「오피니언 리더」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지,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는지, 구성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지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가 기업 같은 정형적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관계에 주목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오피니언 리더에 관한 연구와 같이 비정형적 환경의 리더에 주목하는 접근도 있다. 오피니언 리더는 미디어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4차 [10~13]

정부관료제하에서 국가의 행정 조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과, 각 부처에 속한 공무원인 관료로 구성된다. 장관은 국가의 정책 목표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관료를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이므로, 정부관료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중략)

정부관료제에서 ㉠장관의 리더십 유형은 장관이 관료와의 관계 형성에 접근하는 방식과, 관료의 정책 결정 참여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통제형과 ⓑ타협형이 있다. 통제형 리더십은 관료의 역할을 정책 집행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관료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조직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결적 접근 방식을 택한다. 타협형 리더십은 관료의 정책 결정 참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장관과 관료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정책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장관이 관료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진 장관과 행정적 전문성을 갖춘 관료가 사안별로 서로 견제와 협조를 병행함으로써 건설적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략)

지문 적중

형과 ⓓ관료 자본형은 관료와의 관계 형성을 접근한다. 장관과 관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계약형 리더십은 관료 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결과에 따른 책임을 확보할 것을 강조한다. 실무자인 관료가 장관보다 정보를 많이 보유하여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료의 도덕적 해이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 관리 계약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료 자본형 리더십은 관료의 정책 결정 역할을 인정하면서, 정부관료제 내의 사회 자본인 관료 자본을 형성하고자 한다. 정치학자인 퍼트넘에 따르면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을 요소로 하는 사회 자본은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일단 형성된 후에는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정부관료제에 적용한 것이 공익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한 협동적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료 자본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수평적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제도화되고 이를 통해 공적 신뢰가 형성되면, 전문성을 가진 관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독서: 사회 [14~17] 「오피니언 리더」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지,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는지, 구성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지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가 기업 같은 정형적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관계에 주목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오피니언 리더에 관한 연구와 같이 비정형적 환경의 리더에 주목하는 접근도 있다. 오피니언 리더는 미디어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20세기 중반, 주류 미디어인 신문, 잡지, 라디오를 통해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선거 캠페인의 영향력을 연구하던 라자스펠트와 그의 동료들은 뜻밖의 현상을 발견하였다. ㉠미디어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에서 비롯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적 요소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 이론은 미디어 이용자를 상호 고립되어 원자화된 존재로 파악한 대중 사회 이론의 가정을 ⓐ벗어나 가족, 친구와 같은 1차적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했다. 또한 미디어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입장을 위축시켰고, 이를 계기로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주류로 부상하였다. [illegible]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이 [illegible]

지문 적중

『이매진』 3호 3주차 DAY 2 [1~5]

(가)

리더십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조직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그들이 조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뜻한다. 초기 리더십 연구는 지능, 성격 등 선천적 특성의 측면에서 리더들이 가진 공통점에 주목했으나, 이후 구성원의 특성이나 과업의 성격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리더십의 유효성을 좌우한다는 관점이 제기되었다.

(중략)

번스는 상황적 리더십을 비롯한 기존의 리더십 이론들이 구성원을 리더에 의해 관리되는 객체로만 파악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리더와 구성원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번스는 리더가 높은 비전과 도덕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구성원이 집단적·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들의 동기를 고양하여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변혁적 리더십 모델을 창안했다. 이 과정에서 리더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한 구성원들은 다시 리더에게 영향을 주어, 리더가 더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게 한다. 이 모델은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 변화를 강조했다는 의의를 갖지만, 구성원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illegible]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문학: 고전 소설 [18~21] 「금환기봉」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소저가 이제 벼슬이 공경에 올라 위엄이 사해에 진동하시매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오마는, 첩 등의 이목이 외람하여 소저가 재상의 위풍이 당당함에도 매번 부르기를 '상공(相公)'이라 하지 않고 '소저(小姐)'라 하오니,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본심이 스스로 드러남이니, 마음을 꾸며 세상을 속이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이라. 바라건대 소저는 익히 살피소서. 이런 기회에 진실을 전달하여, 검은 모자를 화관으로 바꾸고 도포와 띠를 녹의홍상으로 바꾸어 규방의 아름다운 여자 되시면, 이 또한 기특한 이름이 되리니, 이러하면 후세의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만고의 비웃음을 면치 못하리니, 세 번 생각하여 한 번의 혐의를 꺼리지 마소서."

영춘의 말이 정연하고 태도에 힘이 있어 조금도 의리에 벗어난 말이 없는지라.

학사가 듣기를 다하매 밝게 깨달아 서안을 치며 차탄 왈,

[B] "어질다, 너의 소견이여. 밝고 높음이 오히려 내가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천하 사람이 다 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더니 일조에 건곤이 바뀌어 옥당 대신이 심규 아녀자가 되니 어찌 비감하지 아니하리오. 칠 년 공명이 속절없이 되었도다."

말을 마치매 길이 탄식하더라.

– 작자 미상, 「금환기봉」 –

『이매진』 2호 3주차 DAY 4 [1~4]

이 말을 들은 장선빙은 영춘의 사람 보는 눈에 감동하면서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예전의 일이 떠올랐다.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벽도화 중의 금석 사이로 떨어진다는 예언이 무슨 뜻인지 몰라 늘 아버님과 상의하셨는데, 내가 지금 영춘의 말을 들으니 분명히 알겠다. 그 소년의 성이 김(금)이요, 외가의 성이 석이니, 금석이라는 말이 분명하다. 또한 벽도촌에서 산다고 하였는데, 벽도는 '푸른 복숭아'를 가리킨다. **그 예언이 바로 이 소년을 가리킨 것**이구나. 정말 그렇다면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리니 어쩌겠는가?'

이에 갑자기 울며 길게 탄식하였다.

"영춘의 말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세상의 부끄러움은 접어 두**겠다. 그러니 나의 **인륜대사인 혼인을 그르치지 말**라."

영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B] "옛날 한나라 임금인 고조 유방도 신하가 한 번 말하면 곧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가씨께서도 저의 한 말씀에 깨달으셨으니, 넓은 마음은 유방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가씨의 종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 작자 미상, 「금환기봉」 –

작품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7] 「잘 익은 사과」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

백 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 치르르치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B]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빨아지는 소리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뺨보다 더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덮어**주고 가네요
그 작은 구름에게선 **천 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네요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없이 **깎이고 있네요**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그렇게 큰 사과를 숟가락으로 파내서
잇몸으로 ㉣ 오물오물 잘도 잡수시네요

- 김혜순, 「잘 익은 사과」 -

『이매진』 3호 4주차 DAY 1 [1~3]

(나)

백 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 치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빨아지는 소리**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뺨보다 더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illegible]와 내 손등을 덮어 주고 가네요
[illegible]게선 천 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네요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 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이고 있**네요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그렇게 큰 사과를 숟가락으로 파내서
잇몸으로 오물오물 **잘도 잡수**시네요

- 김혜순, 「잘 익은 사과」 -

작품 적중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의외의 상황에 의아함을 표현하면서 시상 전개를 시작하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감탄의 표현을 활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다)와 달리,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여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④ (다)는 (나)와 달리,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변화된 시대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현실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매진』 3호 4주차 DAY 1 [1~3]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③ (가)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나)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선지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7] 「잘 익은 사과」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상력은 일상의 현실을 이미지의 세계로 구성하는 데 관여한다. 그러한 점에서 시적 현실은 실재와는 다른, 창조된 현실이다. 여기에는 세계에 대한 화자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가)는 화자가 달밤에 탑의 덮개에서 유사한 모양의 자연물을 떠올리고 공간의 성격이 돌연 변화됨을 느낌으로써 달밤은 생명력이 가득한 환상의 바다로 전환된다. (나)는 화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접한 대상들에 대한 감각적 경험과 이 과정에서 연상된 대상들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마을은 삶의 애환을 감싸안는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① (가)에서 '아뜩한 기쁨'인 '그 빛'은, '눌러 덮은 오랜 자국'을 지닌 가오리가 비상하여 '희디흰 배때기'를 드러낼 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redacted] 것이군.

② (가)에서 '천 마리 가오리들이 날아다'니는 [redacted] '숭숭 검은 가오리'가 '뒤틀린 소나무들' 사이로 날아다닌다는 점에서, 환상적이면서 어두운 바다의 이미지로 볼 수 있군.

③ (나)에서 '큰 사과'가 '깎이고 있네요'는, 골목을 도는 것을 사과 깎기로 보는 상상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마을이 '큰 사과'라는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가)에서 '삼층석탑 옥개석'이 '지느러미'를 펼치는 것과 (나)에서 '그 사람'이 '천 년 동안' '아가인' 것은, 각각의 시적 형상이 실재와는 다른, 창조된 현실임을 보여 주는군.

⑤ (가)에서 '팔뚝'이 '불거진다'는 것과 (나)에서 '한 송이 구름'이 '손등을 덮어주'는 것은, 각각 활력과 위로의 이미지를 상상한 화자의 긍정적 시각을 보여 주는군.

『이매진』 3호 4주차 DAY 1 [1~3]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일상적 경험을 통해 화자의 개성적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가)는 사과를 먹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생명의 순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도는 상황에서 연상한 여러 장면을 감각적으로 제시하며, 둥글게 깎이는 사과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① (가)에서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이라고 표현한 것은, 열매가 결실을 맺기 위해 견뎌 낸 고난의 시간이 다른 대상의 시각을 통해 평가된다는 인식을 나타내는군.

② [redacted] '흙'과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고 표현한 것은 [redacted] 인식이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③ (나)에서 '자전거 바퀴'가 '도는 소리'에서 '찬바람'이 '빵아지는 소리'를 떠올리는 것은, 화자가 소리를 매개로 연상을 이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가)에서 '흙으로 빚어진 사과'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자연의 순환적 원리를 강조하고, (나)에서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큰 사과'가 '깎이고 있'다는 것은 일상적 경험을 참신하게 표현한 개성적 인식을 드러내는군.

⑤ (가)에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부각하고, (나)에서 '할머니'가 '그렇게 큰 사과'를 '잘도 잡수'신다는 것은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모습을 암시하는군.

『이매진』 3호 4주차 DAY 1 [1~3]

2.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 '연구'는 '지식'보다 '땀방울'의 가치를 중시하는 화자의 인식을 강조한다.

② (가)에서 '나이테'는 화자에게 '세월'에 대한 무상감을 불러일으킨다.

③ (나)에서 '구름'이 '손등을 덮어 주'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위안을 드러낸다.

④ (가)에서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는 대상이 견뎌 내야 하는 시련을 나타내고, (나)에서 '유모차'에 실려 '입양' 가는 '아가'는 [redacted] 대상을 나타낸다.

⑤ [redacted] 주'는 대상에 영향을 준 존재들의 총체를 나타내고, [redacted] '먼 나라'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기대를 [redacted]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문학: 고전 시가 [32~34] 「속사미인곡」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종이 벌레 다 먹은들 그 뉘라서 벱에 쬐며
㉢정원에 가득한 꽃 잘라 벤들 뉘 금할꼬
천하에 호소할 데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주 문왕 기산(岐山) 다스릴 제 인정(仁政)을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리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굴 **다시 의지**할꼬
시운이 불행하여 천 리를 떨어져 있으니
내 신세 홀몸인 줄 임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허물**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이오나
근본을 생각하니 임 위한 정성일세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살피실까
살려 주신 이 은혜를 갚기로 기약하니
광주리 든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사리
연잎으로 옷을 짓고 연꽃으로 치마 지어
상자 속에 두어신들 눌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를 밟아 건너
옥루 높은 곳에서 밤마다 임을 뫼셔
한집같이 오가는 문답 말소리 울리는 듯
임금이 불러 문답하던 가태부가 이 같을까
어촌 멀리 닭이 울어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 옥음(玉音)은 귓가에 완연하고
우리 임 화로 향을 옷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생시로 삼을런가
두어라 **왕께서 고쳐 헤아리길** 날마다 바라노라

[A]

-이진유, 「속사미인곡」-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32~34]

황혼의 옛 기약을 다시 찾자 했건마는
참언이 망극하니 임이신들 어이할꼬
시호(市虎)도 성의(成疑)하고 증모(曾母)는 투저(投杼)하니*
우리 임 날 믿기야 세상의 뉘 비할꼬
참소하는 글은 상자 속에 가득 두고*
함정에서 건져 내어 좋은 곳으로 보내니
구련성(九連城) 노숙(露宿)하고 압록강 바삐 건너
사신 수레에서 내리어 죄인 가마 갈아타고
청천강 삼 일 비에 ㉡입은 옷을 다 적시고
별 뜬 밤에 바삐 달려 대동강을 건너올 제
[illegible]인 압송은 예부터 처음이요
아들과 조카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니 남다른 은혜가 거듭된다
박명(薄命)한 이내 몸에 임의 은혜 이러하니
[illegible] 등불에 ㉠피눈물이 절로 난다

(중략)

주 문왕이 기산 다스릴 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시운이 불행하여 천 리에 떠났으니
내 신세 고혈(孤子)한 줄 ㉤임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허물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오 **망령됨**도 내 죄오나
근본을 생각하니 **임 위한 정성**일세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생명 건진 이 은혜를 결초(結草)하기 기약하나
상자 속의 추풍선(秋風扇)*은 어느 날 다시 나올꼬

-이진유, 「속사미인곡」-

작품 적중
대목 일치

문학: 고전 시가 [32~34] 「속사미인곡」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2.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의 적적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은 새로 마련한 공간의 특징을 밝혀, 화자의 [illegible]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의문형 종결 표현을 통해,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고사를 바탕으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임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화자와 임의 정서적 유대감이 심화됨을 나타내고 있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33번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목적지로 향하던 화자에게 갑작스럽게 전해진 것으로, [illegible]가 이전과 달라지는 상황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기상 상황이 화자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동 과정에서 화자가 겪는 고난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진술로, 대상이 자신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화자의 판단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인재가 필요한 상황을 나타내는 진술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대상의 내면을 짐작해 보는 진술로, 자신의 고통을 헤아려 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지 적중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속사미인곡」은 낯선 섬에 유배된 사대부 작가의 유배 가사이다. 유배형은 학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형의 종결은 임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배객의 삶은 불안하다. 「속사미인곡」의 화자는 임금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 심적 고통을 토로한다. 이는 모두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정신적 고투이다.

① 화자가 '주자의 경서'를 펼쳐 보는 한편 '고각'에 있는 책을 염려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한 유배지에서도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② 화자가 '천지간 홀로' 있는 낯선 섬에서 [illegible] '우리 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데서, 임금과 [illegible] 그리워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③ 화자가 '내 신세 홀몸'임을 임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고 '왕께서 고쳐 헤아리길' 염원하는 데서, 임금의 새로운 정치적 판단을 소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④ 화자가 '옛 허물'을 헤아리며 '망령됨'이 죄라고 밝히는 데서, 자신이 죄를 저지른 동기를 부끄러워하는 심적 고통을 엿볼 수 있군.
⑤ 화자가 자신을 '가을 부채'에 빗대며 '광주리'에서 벗어날 때를 몰라 한탄하는 데서, 유배객으로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느끼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군.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34번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 제시된 공간은 화자가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는 곳이지만, 세속과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심화하기도 한다. 한편 (나)에 제시된 공간은 당쟁에서 패배하여 유배된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무력감을 고조하지만, 정적들로부터 벗어난 화자가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와 (나)의 공간이 양면성을 지닌 것은, 당면한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소외된 처지에 심층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작가의 내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illegible]하며 '정처 없이 다'닌다는 것에서, 세속 [illegible]지로 인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군.
② (나)의 '참언이 망극'하여 '황혼의 옛 기약을 다시 찾'지 못하게 된 것에서, 화자가 중앙 권력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게 된 정황이 드러나는군.
③ (나)의 '우직한 '본성'과 '망령됨'이 '임 위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이 취했던 정치적 입장을 돌아보며 이를 정당화하는 화자의 자세가 나타나는군.
④ (가)의 '님만 그'리며 '북쪽을 향'해 우는 것에서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미련을 둔 심정이, (나)의 '상자 속의 추풍선'을 언급하는 것에서 현재의 공간에서 벗어나 정계에 복귀하고 싶어 하는 내면이 드러나는군.
⑤ (가)의 '건곤'이 자신에게 '함께 늙자' 한다는 것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위안을 얻으려 하는 태도가, (나)의 '함정에서 건져 내어 좋은 곳으로 보'냈다는 것에서 유배된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보기> 적중

문학: 고전 시가 [32~34] 「속사미인곡」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중략)

하사받은 책 천 권이 **고각**(高閣)에 묵혔으니
종이 벌레 다 먹은들 그 뉘라서 벌에 쫴며
㉠정원에 가득한 꽃 잘라 벤들 뉘 금할꼬
천하에 호소할 데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주 문왕 기산(岐山) 다스릴 제 인정(仁政)을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리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굴 **다시 의지**할꼬
시운이 불행하여 천 리를 떨어져 있으니
내 신세 홀몸인 줄 임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허물**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이오나
근본을 생각하니 임 위한 정성일세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살피실까
살려 주신 이 은혜를 갚기로 기약하나
광주리 든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사리
연잎으로 옷을 짓고 연꽃으로 치마 지어
상자 속에 두어신들 눌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를 밟아 건너
옥루 높은 곳에서 밤마다 임을 뫼셔
한집같이 오가는 문답 말소리 울리는 듯
임금이 불러 문답하던 가태부가 이 같을까
어촌 멀리 닭이 울어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 옥음(玉音)은 귓가에 완연하고
우리 임 화로 향을 옷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생시로 삼을런가
두어라 **왕께서 고쳐 헤아리길** 날마다 바라노라

[A]

– 이진유, 「속사미인곡」 –

『이매진』 3호 1주차 DAY 3 [1~3]

(나)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시운(時運)이 불행하여 천 리에 떠나시니
내 신세 외로운 줄 임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로되
근본을 생각하면 임 위한 정성일세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結草)하기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사리
마름과 연(蓮)으로 옷을 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 지어
상자 안에 두어신들 눌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碧海)를 밟아 건너
[illegible]을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셔
[illegible](咈咈)에 수답이 여향(如響)하니*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어촌의 먼 닭 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illegible](玉音)은 귓가에 완연하고
[illegible](御爐香)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작품 적중
대목 일치

문학: 고전 시가 [32~34] 「속사미인곡」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2.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의 적적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은 새로 마련한 공간의 특징을 밝혀, 화자의 불편함이 완화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의문형 종결 표현을 통해,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고사를 바탕으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임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화자와 임의 정서적 유대감이 심화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매진』 3호 1주차 DAY 3 [1~3]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남의 말을 인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③ (가)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나)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 (나)는 모두 고사를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역사적 인물과 연결 짓고 있다.

선지 적중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3. 꿈을 중심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잎으로 옷을 짓고'에는 꿈에서 임에게 전할 물건을 현실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연정이 드러난다.
② '눌 위하여 단장할꼬'에는 꿈에서와 달리 현실에서는 누구를 위해 단장해야 할지 몰라서 느끼는 혼란이 드러난다.
③ '말소리 울리는 듯'에는 꿈에서의 경험이 현실에서도 이어지는 듯한 착각이 드러난다.
④ '귓가에 완연하고'에는 꿈에서 함께한 임이 현실에서도 자신을 위로하는 데 대한 고마움이 드러난다.
⑤ '생시로 삼을런가'에는 꿈에서 경험한 임과의 만남을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애절함이 드러난다.

『이매진』 3호 1주차 DAY 3 [1~3]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느끼도록 하는, ㉡은 화자가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② ㉠은 화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계기로, ㉡은 화자가 타인을 도와주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③ ㉠은 화자가 현실의 고통을 이겨 내도록 해 준, ㉡은 화자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도록 해 준 수단이다.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잊고 싶어 하는 과거를 떠올리게 해 주는 매개이다.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소망하는 일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선지 적중

문학: 고전 시가 [32~34] 「속사미인곡」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속사미인곡」은 낯선 섬에 유배된 사대부 작가의 유배 가사이다. 유배형은 학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형의 종결은 임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배객의 삶은 불안하다. 「속사미인곡」의 화자는 임금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 심적 고통을 토로한다. 이는 모두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정신적 고투이다.

① 화자가 '주자의 경서'를 펼쳐 보는 한편 '고각'에 있는 책을 염려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한 유배지에서도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② 화자가 '천지간 홀로' 있는 낯선 섬에서 '다시 의지'할 대상이 '우리 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데서, 임금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③ 화자가 '내 신세 홀몸'임을 임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고 '왕께서 고쳐 헤아리길' 염원하는 데서, 임금의 새로운 정치적 판단을 소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④ 화자가 '옛 허물'을 헤아리며 '망령됨'이 죄라고 밝히는 데서, 자신이 죄를 저지른 동기를 부끄러워하는 심적 고통을 엿볼 수 있군.
⑤ 화자가 자신을 '가을 부채'에 빗대며 '광주리'에서 벗어날 때를 몰라 한탄하는 데서, 유배객으로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느끼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군.

『이매진』 3호 1주차 DAY 3 [1~3]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유배지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가)의 화자는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노모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와 (나)의 화자는 유배당한 것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여기며 임금이 자신을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① (가)의 '하늘 끝 외진 곳에서 새해를 네 번이나 보'며 '학발 의려를 어찌 위로'하겠느냐는 것은,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표현이겠군.
② (나)의 '광주리의 가을 부채'가 '어느 날 다시 날꼬'라는 것은, 철 지난 부채처럼 버림받은 화자가 기약 없는 임과의 재회로 인해 탄식하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겠군.
③ (가)의 '기러기'는 화자의 소식을 고향으로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상징한 표현이라면, (나)의 '부용'으로 지은 '치마'는 임을 향한 화자의 원망을 상징한 표현이겠군.
④ (가)의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나)의 '옛 잘못을 헤아'린다는 것은, 유배의 원인이 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임금의 은혜를 되새기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표현이겠군.
⑤ (가)의 '일월'이 '하토에 비추'신다는 것과 (나)의 '일월 같은 우리 임'이 '아니 굽어볼까'라는 것은, 임금이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 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나타낸 표현이겠군.

<보기> 적중

선지 적중

언어: [35~36] (중세+단어) 「색채어의 형성과 활용」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5~36]

국어에는 빛깔을 나타내는 말, 즉 '색채어'가 발달되어 있다. 색채어는 '붉다', '빨강'처럼 특유한 빛깔을 나타낸다. '짙다, 옅다, 어둡다, 밝다' 등은 특유한 빛깔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채어가 아니다.

현대 국어의 색채어 형용사에는 '검다/감다, 희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노르다'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15세기 국어의 '검다/감다, 희다/히다, 븕다/붉다, 프르다/픠르다, 누르다/노ᄅᆞ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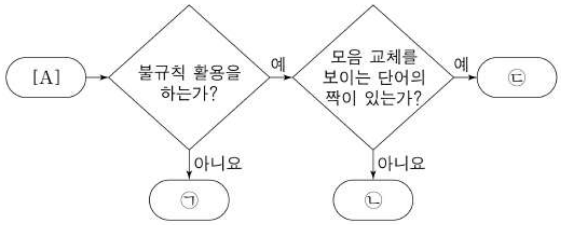
(중략)

색채어가 합성, 파생, 자음 교체, 모음 교체 등을 통하여 형성되면, 그 의미도 다양해진다. 서로 다른 두 색채어의 어근을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할 때, 선행 어근은 후행 어근이 나타내는 빛깔의 밝거나 어두운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예: 희붉다). 연결 어미 '-디'를 사용하여 어근을 반복하면, 색채어 어근이 나타내는 빛깔이 매우 선명함을 나타낼 수 있다(예: 검디검다). 접사 '새-/시-' 등은 색채어 형용사 어근이 나타내는 빛깔이 더 선명함을 더하고(예: 새빨갛다), 접사 '연(軟)-'은 색채어 [illegible] 빛깔이 덜 선명하다는 의미를 더한다(예: 연두색, 연초록). 그리고 색채어 단어 짝에서 자음이 경음이나 격음일 때에는 평음일 때보다 더 짙은 느낌을 주고, 색채어 단어 짝에서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에는 양성 모음일 때보다 더 어두운 느낌을 준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A]는 [자료]의 ⓐ~ⓒ에서 비롯한 현대 국어의 색채어이다. [A]를 아래 그림에 따라 분류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이 [자료]의 ⓐ~ⓒ 중에 무엇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알아보자.



[자료] 색채어가 쓰인 15세기 국어 자료

- 雲霧ㅣ ⓐ누러ᄒᆞ도다(누르-+-어 ᄒᆞ-+-도-+-다)
  [구름과 안개가 누렇도다]
- 버듨 가지ᄂᆞᆫ ⓑ프르고(프르-+-고)
  [버드나무의 가지는 푸르고]
- 片雲이 머리 우희 ⓒ거므니(검-+-으니)
  [조각구름이 머리 위에 검으니]

① ㉠: ⓐ ② ㉡: ⓑ ③ [illegible]
④ ㉢: ⓐ, ⓑ ⑤ ㉢: ⓐ, ⓒ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9일차 [35~36]

15세기 국어에서 잘 지켜졌던 모음조화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ㆍ'가 소실되고, 이와 더불어 이중 모음이었던 'ㅐ, ㅔ, ㅚ, ㅟ'가 단모음으로 바뀌면서 단모음 체계는 '축'에 의한 대립이 아니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대립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 'ㅣ'는 그대로 중성 모음으로 남았지만, 'ㆍ'를 제외한 설축 모음과 'ㅐ', 'ㅚ'는 양성 모음으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모음은 음성 모음으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ㆍ, ㅗ, ㅏ : ㅡ, ㅜ, ㅓ'로 균형을 이루었던 대립이 무너지게 되면서 모음조화가 약화되었다.

[A] 한편 모음조화는 어휘의 분화에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어떤 단어의 모음을 이와 대립되는 다른 모음으로 바꿈으로써 어휘가 확장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음의 대립으로 인한 단어의 쌍에는 '갇다[걷다]/걷다[걷다]'처럼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노라ᄒᆞ다[노랗다]/누러ᄒᆞ다[누렇다]'처럼 의미는 유사하나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놀다[날다]/늘다[늘다]'처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었다.

내용 적중

36.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15세기 국어의 예
○ 빗 도ᄃᆞᆫ 것과 ᄇᆞᆯᄀᆞᆫ 거ᅀᅳ로[빛이 돋은 것과 붉은 것으로]
○ ᄇᆞᆯᄀᆞᆫ 오야지 므레 ᄃᆞ마도[붉은 자두가 물에 잠겨도]
○ 뒤히 어듭고 알피 ᄇᆞᆰᄀᆞ니[뒤가 어둡고 앞이 밝으니]
현대 국어의 예
○ 따스하고 밝은 햇빛이 내리쬐었다.
○ 꽃병에는 붉은 장미가 꽂혀 있었다.

① 15세기 국어의 '븕다'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확장되었군.
② 15세기 국어의 '븕다/븕다'는 '노라ᄒᆞ다/누러ᄒᆞ다'처럼 어감의 차이만 있었군.
③ 15세기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의 '밝다/붉다'는 모음조화에 의해 모음이 대립하는 단어의 쌍으로 볼 수 없군.
④ 15세기 국어의 '븕다/븕다'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완전히 분화되어 각자의 의미 영역을 갖게 되었군.
⑤ 15세기 국어와 마찬가지로 현대 국어의 '밝다/붉다'는 형태소끼리의 결합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군.

선지 적중

언어: [39]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번

39.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멍이'이다. ㉠내가 멍이와 친구처럼 지낸 지 오늘로 두 달이 되었다. 멍이가 요즘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멍이 장난감 고르기를 가장 먼저 수행할 과제로 정했다. ㉢멍이야, 넓은 공원에서 나랑 재미있게 놀자. 멍이야, 사랑해.

① ㉠의 보어와 ㉡의 필수적 부사어에는 각각 관형어가 있다.
② ㉠의 관형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의 부사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③ ㉠에는 주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고, ㉡에는 목적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다.
④ ㉠과 ㉢에는 각각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다.
⑤ ㉡에는 관형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고, ㉢에는 관형어가 있는 안긴절이 없다.

27학년도 상상모의 시즌3 3차 39번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내 경험으로는 여름 무보다 겨울 무가 단맛이 더 난다.
> ㉡ 이번이 첫 시험이었지만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합격했다.
> ㉢ 우리들은 동생이 놀라지 않도록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 ㉣ 그녀는 "아버지는 정의로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 ㉤ 이번 일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① ㉠의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② ㉡의 안긴문장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③ ㉢의 안긴문장은 서술어의 필수적 부사어로 기능한다.
④ ㉣의 안긴문장 안에는 부속 성분으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⑤ ㉤의 안긴문장은 격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내용 적중

선지 적중

언어: [39]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번

39.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멍이'이다. ㉠내가 멍이와 친구처럼 지낸 지 오늘로 두 달이 되었다. 멍이가 요즘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멍이 장난감 고르기를 가장 먼저 수행할 과제로 정했다. ㉢멍이야, 넓은 공원에서 나랑 재미있게 놀자. 멍이야, 사랑해.

① ㉠의 보어와 ㉡의 필수적 부사어에는 각각 관형어가 있다.
② ㉠의 관형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의 부사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③ ㉠에는 주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고, ㉡에는 목적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다.
④ ㉠과 ㉢에는 각각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다.
⑤ ㉡에는 관형어가 있는 안긴절이 있고, ㉢에는 관형어가 있는 안긴절이 없다.

27학년도 상상국어 N제 2일차 38번

38.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손발이 시리도록 추운 날이 연일 계속되었다.
> ㉡ 그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 ㉢ 나는 동생에게 올해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 ㉣ 그녀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기로 다짐했다.

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② ㉠과 ㉢에는 모두,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과 ㉢에는 모두,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내용 적중

선지 적중